

세대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 특성 차이 분석*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of Socio-demographic and Residential Outcomes between Young Adult Children Leaving Parental Home and Their Parents

이현정**

Hyunjeong Lee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generational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of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statuses between young adult children leaving the parental home and their parents. Utilizing the 20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609 households who have left their parent home from 1999 to 2017. Two-thirds of the adult children were married couples while the rest was singles. Children'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and their household size was smaller than their parents. Both generations were mainly headed by employed and married men. The vast majority of the adult children lived in the same area with their parents and lived as tenants in much smaller housing than their parents. On the contrary, most parents were homeowners of a large single-family hom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clearly observed in housing tenure, housing structure, and housing size. Although leaving parents' home is part of a transition to adulthood (depending on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afford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that process was largely triggered by the employment status that can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rather than their marital status. Both housing and job opportunitie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ndependent life.

Keywords: Young Adult Children(청년층 자녀), Leaving Parental Home(분가), Residential Outcomes(거주특성), Intergenerational Discrepancies(세대 간 상이성), Housing Welfare(주거복지)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개발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는 산업화 중심의 압축성장과 함께 급속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가족형태는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시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와 미혼자녀의 동거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 보편적이었다. 실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지형(socio-demographic landscape) 재편은 현저하였다.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세대(世代) 간 동거(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유형인 3세대 이상의 대가족 비율은 1970년 23.2%, 2000년 10.0%, 2017년 7.0%로 급감한 반면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2세대 핵가족의 비율은 1970년 70.0%, 2000년 72.9%, 2017년

*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8R1D1A1B07040295).

**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교신저자: ecohousing@khu.ac.kr)

(Received: October 28, 2020 / Revised: December 1, 2020 / Accepted: December 1, 2020)

67.8%로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였고 세대 축소화는 더욱 가속화하여 1세대 가구의 비율은 1970년 6.8%, 2000년 17.1%, 2017년 25.2%로 급증하였다(그림 1) (통계청, 2020). 산업화 과정에서 가구 분화는 제조업 산업단지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의 전입으로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고용 중심 거주지 분리는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인 자녀 분가의 주요 동인이다.

자녀의 분가(leaving parental home)는 생애주기 상 주로 청년기에 흔히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청년기 자녀의 분가는 협의적으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거주하는 생활을 뜻하지만, 광의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수반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자녀 독립이 지연될수록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Schnaiberg and Goldenberg, 1989; White and Edwards, 1990; Aquilino and Supple, 1991). 현실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 독자적인 주거생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데, 청년기 자녀 스스로 단독 주거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들의 주거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녀의 소득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지적된다(김주영, 2016). 현재와 같은 불안한 고용시장과 변동성이 큰 주택시장에서 청년기 자녀의 신규 진입이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를 지체시킨다. 청년기 자녀의 분가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녀의 완전한 자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녀 분가의 지연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는 노후 준비가 늦어지는 동시에

고용시장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¹⁾ 그러나 분가한 자녀의 거주실태에 대한 연구는 혼인령(예, 신혼부부)에 한정하거나 기혼자녀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청년기에 분가한 성인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 간의 거주특성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유사 연구로 세대 간 주택자산 이전이 일부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자가소유 또는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집중되었다(김용진, 2013; 김주영·유승동, 2013; 마강래·권요규, 2013; 고진수 외, 2015; 김주영, 2016; 강은택 외, 2017; 아스카·최막중, 2018). 후기 산업사회 진입과 함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 분가가 늦어짐에 따라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의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유사성과 상이성을 거주지역별로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들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과 비교하여 세대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자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0차년도(2017년)를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분가한 자녀가구를 추적한 후 이들의 가구주와 가구원 자료를 일일이 연결시켜 조사대상가구의 데이터 세트(set)를 구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예, 거주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원 수, 고용상태, 종사상의 지위)과 거주 특성(예,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의 결측값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총 609가구의 자녀-부모가구 세트를 추출한 후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 〈연구문제 1〉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거주지역별 세대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의 거주 특성은 어떠한가, 거주지역별 세대 간 거주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유사성과 상이성은 어떠한가, 거주지역별 세대 간 유사성과 상이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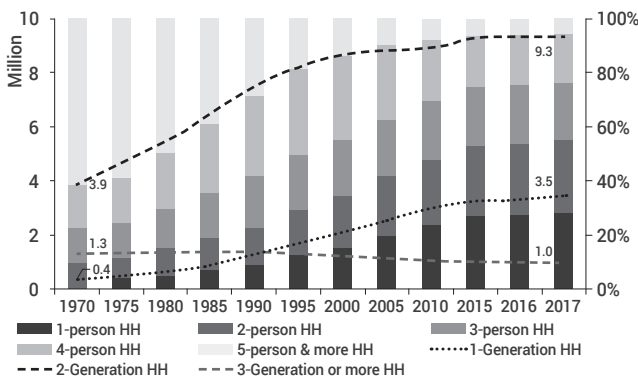


Fig. 1. Annual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Generations (1970-2017)

Source: Statistics Korea(2020)

1) 미혼 청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영국의 키퍼스, 미국의 트웍스터, 일본의 패러사이트 싱글, 프리터, 니트 등 신조어가 등장함.

조사기간 18년에 걸쳐 연평균 32 자녀가구가 분가하였으며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가한 자녀가구 수가 수도권보다 조금 더 많았다(그림 2).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의 수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전국 2013년(20건), 수도권 2017년(8건), 비수도권 2014년(10건)인 반면 가장 많았던 시점은 2010년으로 전국(61건), 수도권(30건), 비수도권(31건) 모두 정점을 찍었다.²⁾

2. 이론고찰

2.1 청년의 정의 및 청년 인구의 현황

생애주기적 발달단계에서 청년기는 19-39세를 의미하며, 이 시기 청년은 학교 졸업,³⁾ 취직,⁴⁾ 이성교제 및 결혼,⁵⁾ 임신 및 출산,⁶⁾ 분가 또는 주거 마련⁷⁾ 등 주요 과업들을 수행한다. 청년의 정의는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3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15-29세로 규정하며, 심지어 동일 법령 내에서도 각기 다른 연령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제26조, 제27조, 제93조) (법제처, 2020). 다만 정부지원 프로그램 상당수가 39세 이하를 청년 연령의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2017a)가 발표한 생애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

램⁸⁾에서 청년을 만 19-39세로 명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핵심 인력인 청년을 19-39세인 자로 한다.

저출산의 만성적인 장기화⁹⁾로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1999년 4,716만 명, 2017년 5,123만 명)에서 청년 인구(1999년 1,825만 명, 2017년 1,479만 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10.1% 감소하였다(그림 3) (통계청, 2020). 동기간 전체 인구가 상승한(8.6%) 것과 반대로 청년 인구는 급감하였다(-18.9%). 이러한 청년 인구 감소세는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1999년 72.2%, 2017년 72.8%) 구성비에도 영향을 미쳐 동기간 생산가능연령인구대비청년 인구 비율(53.6%, 39.6%)도 14.0% 급감하였다. 동기간 청년 인구의 성비에 변화가 없어 남성 청년 인구(1999년 934만 명, 2017년 767만 명)가 여성 청년 인구(1999년 891만 명, 2017년 712만 명)보다 조금 더 많았다.

청년 인구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9년 기준 청년 인구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수(950만 명, 52.1%)와 비율이 수도권 지역(875만 명, 47.9%)보다 더 많고 컸으나 18년 동안 청년 인구 감소폭이 비수도권 지역(-10.8%)이 수도권(-26.5%)보다 더 커 2017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 수(781만 명)가 비수도권(699만 명)보다 더 많았다(그림 4) (통계청, 2020). 상대적으로 진학과 취직 기회가 더 많은 수도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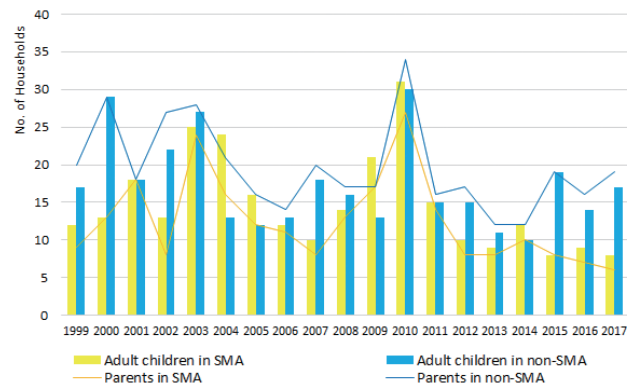


Fig. 2. Annual Distribution of Participati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SMA and non-SMA (1999-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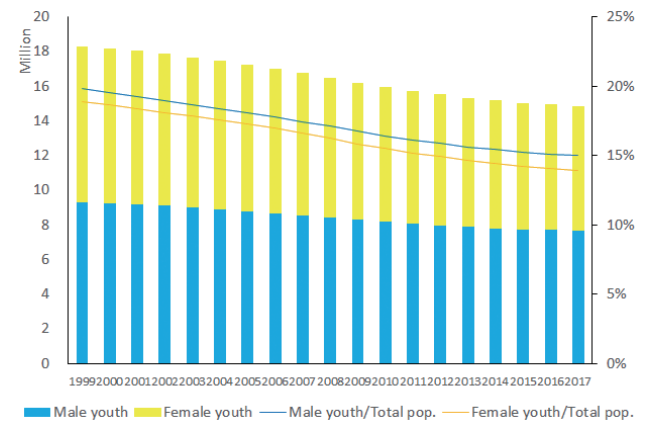


Fig. 3. Annual Distribution of Youth Population by Gender (1999-2017)

Source: Statistics Korea(2020)

2)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6.8%)이 가장 높았던 해로 소비자물가(2.9%)와 주택매매가격(2.4%)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었음(한국은행, 2020).
 3) 대학진학률은 1999년 66.6%(남성 69.2%, 여성 63.9%), 2017년 68.9%(남성 65.3%, 여성 72.7%)이었음(통계청, 2020).
 4)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60.6%(남성 74.4%, 여성 47.6%), 2017년 63.1%(남성 74.1%, 여성 52.9%)이었음(통계청, 2020).
 5) 초혼연령은 1999년 남성 29.1세, 여성 26.3세, 2017년 남성 32.9세, 여성 30.2세이었음(통계청, 2020).
 6) 평균 출산연령은 1999년 28.7세, 2017년 32.6세이었음(통계청, 2020).
 7) 결혼 후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은 전국 평균 1999년 7.2년, 2017년 6.8년이었음(국민은행, 1999; 국토교통부, 2017b).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이 있음.
 9) 합계출산율은 1999년 1.4명, 2017년 1.1명이었음(통계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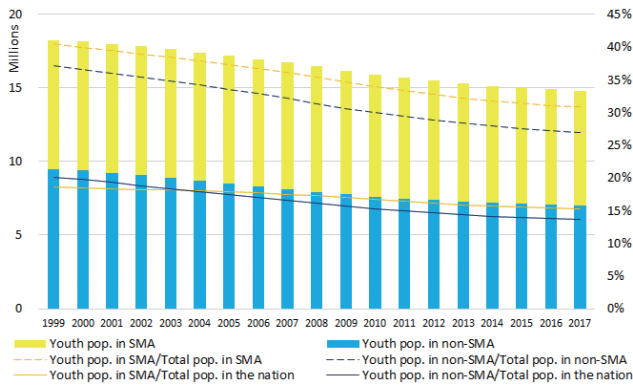


Fig. 4. Annual Distribution of Youth Population in SMA and non-SMA (1999-2017)

Source: Statistics Korea(2020)

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그 쏠림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18년간 청년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 비율(1999년 40.6%, 2017년 30.8%)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 비율(1999년 18.5%, 2017년 15.2%)의 낙폭은 비수도권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 비율(1999년 27.1%, 2017년 27.0%)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 비율(1999년 20.1%, 2017년 13.6%)보다 적었다.

2.2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분가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세대 간 거주 특성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유사 연구로 이타주의 이론 (altruism theory)¹⁰⁾이나 교환이론(exchange theory)¹¹⁾에 근거하여 세대 간 자산이전이나 이동(김용진, 2013; 마강래·권오규, 2013; 고진수 외, 2015; 김주영, 2016; 김주영·유승동, 2016; 강은택 외 2017; 아스카·최막중, 2018)을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 측면에서 살펴보거나 자녀의 자가취득이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가 일부 있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노년층 세대 간 자가 마련 경로를 생애사 접근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세대가 내려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졌고(대졸)고졸, 결혼 직후 분가하여 아파트의 전세 가구로 거주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자가를 마련하였으며 자가취득 시기가 빨라졌다(이현정, 2015b). 즉, 부모의 금전적 도움은 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로 자녀의 주거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세대 간 주거복지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에코세대와 베이비부머 간 주택 자산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종단 연구에서 양 세대 모두 가구주가 남성의 급여생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에코세대의 교육 수준(대졸 이상)이 베이비부머(고졸 이하)보다 높았고 미혼과 1-2가구가 많은 반면 베이비부머는 가구규모(3-4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2015a). 또한 세대 간 거주특성에서 에코세대 대부분은 아파트 외 주택(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임차인이었으나 베이비부머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주였으며, 주택규모에서 에코세대 대다수는 소형 주택,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였다. 또한 성금단(2017)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간의 주거인식과 이사계획을 살펴본 횡단분석 연구에서 에코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 주로 남성이거주였고, 에코세대(초대졸 이상)가 베이비부머세대(고졸 이하)보다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미혼 또는 기혼자로 대별되는 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에코세대보다 가구규모가 커 4인 가정의 가장임을 기술하였다. 이어 성금단(2017)은 두 세대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에코세대는 아파트 외 공동주택(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베이비부머세대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고 에코세대가 베이비부머세대보다 작은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 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차가보다 선호하며, 가구주 연령과 소득, 가구원 수가 자가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주택유형은 전 연령에 걸쳐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선호하며, 각 유형별로 가구주의 연령, 학력, 직업, 가구원 수,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김주영·유승동, 2013). 즉, 단독주택은 50대와 60대 이상, 5인 이상 가구, 자영업 종사 자가 소유주, 아파트는 고학력자(대졸 이상), 3-4인 가구, 자영업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1-2인 가구, 수도권 거주 가구에서 선호하였다. 또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간의 관계에서 자가 가구는 아파트(1/2), 단독주택(1/4),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순으로 선택하는 반면 차가 가구는 단독주택(1/2), 아파트(1/4), 연립 및 다세대주택 순으로 선택하였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간 주택자산 이동을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으로 분석한 마강래·권오규(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간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이 비슷한 세대 간 전이현상을 역설하였다. 즉, 주택점유형태에서 자녀세대는 전세(3/4), 자가(1/4), 월세 순으로, 부모세대는 자가(4/5), 전세(1/10), 월

10) 이타적 부모는 자녀의 효용을 통해 부모의 효용이 극대화됨에 따라 세대 간 주택자산 이전이 발생한다는 관점임(Becker, 1991; Altonji et al. 1996).

11)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또는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보상을 수반하는 상호혜성에 근거하여 세대 간 주택자산의 이전(예, 상속, 증여 등)을 설명하는 관점임(Cox, 1987; Sabatelli and Shehan, 1993).

세 순으로 많았으며, 주택유형에서 자녀세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부모세대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순으로 많이 거주하였다.

한편 세대 간 주거 질을 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자녀의 주택가격에 부모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40세 이하 분기한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초대졸 및 대졸 이상)이 부모세대(고졸 이하)보다 높았으며, 대다수 자녀가구(3/5 이상)가 부모와 동일한 주택시장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김주영, 2016). 또한 자녀세대의 주택점유형태는 전월세(2/3), 부모세대는 자가 거주자(3/4)였으며, 자녀세대의 주택유형은 아파트(2/5), 부모세대는 단독주택(2/5)에 많이 거주하였음을 덧붙였다. 아울러 자녀세대의 주택가격은 부모의 주택가격과 비례하였고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와 가구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세대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절반가량이 비수도권에 거주하였으며,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은 부모세대(1/10)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3/5)였으며, 자녀세대의 주택점유형태는 자녀가구주의 연령, 직업, 부모세대의 주택점유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주영·유승동, 2016). 즉, 자녀 연령이 많고 자영업자이며 부모가 자가소유주일수록 자녀는 자가를 선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사 연구들 대부분은 특정 출생 코호트에 치중하여 세대 간 거주 특성 일부(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에 국한시켜 세대 간 전이를 분석하였고, 분기한 자녀가구의 연령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부모가구와 비교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세대 간 거주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청년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부모가구와 비교하여 세대 간 거주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립의 산실로서 분기한 청년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간 거주실태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분가를 유지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향을 제고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3. 결과분석 및 논의

3.1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분기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들의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자녀가구 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조금 더 많은 가운데 절대 다수는 남성가구주였으나 여성가구주의 수는 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약 1.9배 더 많았다(표 1). 즉, 비수도권에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수도권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자녀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30세였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자녀가구의 3/5가량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자녀가구의 다수(2/3)는 기혼자였으나 미혼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기혼 자녀가구 수가 미혼 자녀가구 수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결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인이었고 주로 가족형성기 진입단계였으며,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의 가구규모가 수도권보다 조금 더 컸다. 거의 모든 자녀가구가 근로 중(9/10 이상)이었고 정규직(4/5 이상)의 임금근로자(약 9/10)였다. 자녀가구는 대체로 30세 남성 가구주로 상용직의 임금근로자로, 1-2인 가정의 고학력 기혼 남성 가장이 많은 가운데 가구주 성별과 가구규모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분기한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부모가구 중 3/5 이상은 비수도권 지역에, 1/3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다. 분기한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였는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지역에 상관없이 50대 후반(58세) 장년층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대다수였으며,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가 비수도권의 부모가구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을 수도권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1/6)이, 비수도권에서 고졸

Table 1. Socio-Demographic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χ^2 or t-value (A&B)	Parents			χ^2 or t-value (C&D)
	Total	SMA (A)	Non-SMA (B)		Total	SMA (C)	Non-SMA (D)	
Gender of householder	Male	520 (85.4%)	222 (79.3%)	298 (90.6%)	501 (82.3%)	195 (82.3%)	306 (82.3%)	$\chi^2=15.456^{*****}$
	Female	89 (14.6%)	58 (20.7%)	31 (9.4%)	108 (17.7%)	42 (17.7%)	66 (17.7%)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Age of householder (years old)	Mean	29.9	29.9	29.9	58.1	58.2	58.1	t=0.270
	S.D.	3.8	3.6	3.9	7.5	7.8	7.4	
	Median	30	30	30	58	58	58	
	Minimum	19	19	19	30	32	30	
	Maximum	39	39	39	86	86	80	

(Continue on next page)

Category	Adult Children			χ^2 or t-value (A&B)	Parents			χ^2 or t-value (C&D)			
	Total	SMA (A)	Non-SMA (B)		Total	SMA (C)	Non-SMA (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er	High school graduate & lower	228 (37.4%)	94 (33.6%)	134 (40.7%)	$\chi^2=3.309$	535 (87.8%)	197 (83.1%)	338 (90.9%)	$\chi^2=8.120^{***}$		
	College graduate & higher	381 (62.6%)	186 (66.4%)	195 (59.3%)		74 (12.2%)	40 (16.9%)	34 (9.1%)			
	College graduate	351 (57.6%)	164 (58.6%)	187 (56.8%)		64 (10.5%)	37 (15.6%)	27 (7.3%)			
	Graduate degrees	30 (4.9%)	22 (7.9%)	8 (2.4%)		10 (1.6%)	3 (1.3%)	7 (1.9%)			
	Total	584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Marital status	Married	403 (66.2%)	186 (66.4%)	217 (66.0%)	$\chi^2=3.552$	480 (78.8%)	186 (78.5%)	294 (79.0%)	$\chi^2=3.194$		
	Never married	200 (32.8%)	89 (31.8%)	111 (33.7%)		7 (1.1%)	5 (2.1%)	2 (0.5%)			
	Unmarried	6 (1.0%)	5 (1.8%)	1 (0.3%)		122 (20.0%)	46 (19.4%)	76 (20.4%)			
	Bereaved	1 (0.2%)	1 (0.4%)	0 (0.0%)		75 (12.3%)	29 (12.2%)	46 (12.4%)			
	Divorced	4 (0.7%)	3 (1.4%)	1 (0.3%)		31 (5.1%)	11 (4.6%)	20 (5.4%)			
	Separated	1 (0.2%)	1 (0.4%)	0 (0.0%)		16 (2.6%)	6 (2.5%)	10 (2.7%)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Household size (persons)	Mean	2.0	1.9	2.1	t=2.182**	2.8	2.8	2.8	t=0.603		
	S.D.	0.9	0.8	0.9		1.2	1.1	1.2			
	Median	2	2	2		3	3	3			
	Minimum	1	1	1		1	1	1			
	Maximum	6	4	6		9	9	7			
	One	188 (30.9%)	90 (32.1%)	98 (29.8%)		$\chi^2=7.278$	57 (9.4%)	23 (9.7%)		34 (9.1%)	$\chi^2=1.872$
	Two	263 (43.2%)	129 (46.1%)	134 (40.7%)			209 (34.3%)	80 (33.8%)		129 (34.7%)	
	Three	133 (21.8%)	55 (19.6%)	78 (23.7%)			205 (33.7%)	86 (36.3%)		119 (32.0%)	
	Four & more	25 (4.1%)	6 (2.1%)	19 (5.8%)			138 (22.7%)	48 (20.3%)		90 (24.2%)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Whether to work or not	Employed	572 (93.9%)	258 (92.1%)	314 (95.4%)	$\chi^2=2.883^*$	456 (74.9%)	175 (73.8%)	281 (75.5%)	$\chi^2=0.222$		
	Unemployed	37 (6.1%)	22 (7.9%)	15 (4.6%)		153 (25.1%)	62 (26.2%)	91 (24.5%)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Job stability	Stable	415 (87.4%)	193 (86.2%)	222 (88.5%)	$\chi^2=0.560$	120 (53.3%)	52 (54.7%)	68 (52.3%)	$\chi^2=0.130$		
	Unstable	60 (12.6%)	31 (13.8%)	29 (11.5%)		105 (46.7%)	43 (45.3%)	62 (47.7%)			
	Total	475 (100%)	224 (100%)	251 (100%)		225 (100%)	95 (100%)	130 (100%)			
Employment status	Salaried workers (a)	513 (89.7%)	235 (91.1%)	278 (88.5%)	χ^2 (a&b) =0.996	241 (53.1%)	104 (60.1%)	137 (48.8%)	χ^2 (a&b) =5.550**		
	Regular workers (i)	472 (82.5%)	217 (84.1%)	255 (81.2%)		157 (34.6%)	70 (40.5%)	87 (31.0%)			
	Irregular workers (ii)	41 (7.2%)	18 (7.0%)	23 (7.3%)		84 (18.5%)	34 (19.6%)	50 (17.8%)			
	Self-employed (b)	59 (10.3%)	23 (8.9%)	36 (11.5%)		213 (46.9%)	69 (39.9%)	144 (51.2%)			
	Small business owners (iii)	55 (9.6%)	22 (8.5%)	33 (10.5%)		χ^2 (i-iv) =1.400	202 (44.5%)	64 (37.0%)		138 (49.1%)	χ^2 (i-iv) =6.780
	Unpaid workers (iv)	4 (0.7%)	1 (0.4%)	3 (1.0%)			11 (2.4%)	5 (3.0%)		6 (2.1%)	
Total	572 (100%)	258 (100%)	314 (100%)	454 (100%)	173 (100%)	281 (100%)					

Note. 1) *p<0.1, **p<0.05, ***p<0.01, ****p<0.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이하의 가구주 비율(9/10)이 더 높았다. 부모가구의 혼인상태는 전체 대다수가 기혼자(약 4/5)였지만, 비혼 비율(1/5)도 상당하였으며 이들 비혼 부모가구는 주로 사별(3/5)에 의한 비혼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구의 가구규모는 대체로 3인 이하로 2-3인의 가정(3/5 이상)이 많았고 가족생활주기 상 축소기에 있었다. 부모가구의 가구주 대부분(3/4)이 현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로, 고용상태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보다 조금 더 많았고 종사상의 지위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자영업자보다 소폭 더 높았다. 다만 종사상의 지위에서 지역 간 분포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그리고 비수도권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가구는 주로 3인 가정의 58세 기혼 남성 가장으로 고졸 이하의 근로자였으며, 가구의 교육수준과 종사상의 지위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가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세대(世代) 간 유사성과 상이성이 모두 나타났는데, 자녀와 그 부모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대체로 기혼 남성 가구주의 근로자였다.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수도권 거주(1.2배), 고학력자(5.1배), 미혼 가구(28.6배), 상용직(3.0배) 임금근로자(2.1배)가 더 많았으며 가구규모가 더 작았다. 반면 부모가구는 자녀가구보다 비수도권 거주(1.6배), 사별에 의한 비혼 가구 수(75배), 자영업자(3.6배)가 더 많았고 가구규모(1.4배)가 더 큰 반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졸 이하 2.3배).

3.2 조사대상가구의 거주 특성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의 주택특성을 정리하면, 분가한 자녀가구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에서 대다수(3/4 이상)가 임차인이었으며, 차가가구는 자가가구보다 3.7배 더 많았고 전세가가 월세가구보다 2.5배 더 많았다(표 2). 이는

Table 2. Housing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χ^2 or t-value (A&B)	Parents			χ^2 or t-value (C&D)	
	Total	SMA (A)	Non-SMA (B)		Total	SMA (C)	Non-SMA (D)		
Housing tenure type	Owning (a)	129 (21.2%)	53 (18.9%)	76 (23.1%)	$\chi^2=1,577$	473 (77.7%)	169 (71.3%)	304 (81.7%)	$\chi^2=9,049^{****}$
	Rent	480 (78.8%)	227 (81.1%)	253 (76.9%)		136 (22.3%)	68 (28.7%)	68 (18.3%)	
	Chonsei (b)	287 (47.1%)	154 (55.0%)	133 (40.4%)	$\chi^2(a-d)=15,510^{**}$	68 (11.2%)	40 (16.9%)	28 (7.5%)	$\chi^2(a-d)=17,930^{****}$
	Monthly rent (c)	116 (19.0%)	49 (17.5%)	67 (20.4%)		52 (8.5%)	25 (10.5%)	27 (7.3%)	
	Others (d)	77 (12.6%)	24 (8.6%)	53 (16.1%)		16 (2.6%)	3 (1.3%)	13 (3.5%)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Housing structure type	APT (a)	296 (48.6%)	123 (43.9%)	173 (52.6%)	$\chi^2=4,536^{**}$	185 (30.4%)	77 (32.5%)	108 (29.0%)	$\chi^2=0,818$
	Non-APT	313 (51.4%)	157 (56.1%)	156 (47.4%)		424 (69.6%)	160 (67.5%)	264 (71.0%)	
	SFH (b)	81 (13.3%)	30 (10.7%)	51 (15.5%)	$\chi^2(a-d)=15,638^{****}$	289 (47.5%)	80 (33.8%)	209 (56.2%)	$\chi^2(a-d)=43,414^{****}$
	MFH (c)	185 (30.4%)	107 (38.2%)	78 (23.7%)		107 (17.6%)	68 (28.7%)	39 (10.5%)	
	Others (d)	47 (7.7%)	20 (7.1%)	27 (8.2%)		28 (4.6%)	12 (5.1%)	16 (4.3%)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Housing size	Mean	67.5	64.9	69.8	t=1,241	197.9	166.6	217.9	t=2,983^{****}
	S.D.	48.8	53.2	44.6		204.5	213.7	196.2	
	Median	62.8	59.5	66.1		109.1	105.8	153.7	
	Minimum	6.61	9.92	6.61		9.9	26.5	9.9	
	Maximum	661.2	661.2	406.2		2247.9	2247.9	1090.9	
	Under 60m ²	303 (49.8%)	160 (57.1%)	143 (43.5%)	$\chi^2=11,991^{**}$	105 (17.2%)	53 (22.4%)	52 (14.0%)	$\chi^2=38,503^{****}$
	60-85m ²	209 (34.3%)	82 (29.3%)	127 (38.6%)		114 (18.7%)	40 (16.9%)	74 (19.9%)	
	86-102m ²	24 (3.9%)	11 (3.9%)	13 (4.0%)		43 (7.1%)	23 (9.7%)	20 (5.4%)	
	103-135m ²	58 (9.5%)	22 (7.9%)	36 (10.9%)		84 (13.8%)	49 (20.7%)	35 (9.4%)	
	Above 135m ²	15 (2.5%)	5 (1.8%)	10 (3.0%)		263 (43.2%)	72 (30.4%)	191 (51.3%)	
Total	609 (100%)	280 (100%)	329 (100%)	609 (100%)	237 (100%)	372 (100%)			

Note. 1) **p<0.05, ***p<0.01, ****p<0.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3) APT for Apartments, SFH for single family home, and MFH for all types of multifamily housing but APT, PIR for price-to-income ratio

기혼 자녀가구의 비율이 많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기혼의 청년 가구는 자가구입 계획을 염두에 두고 목돈 마련을 위해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차가가구가 자가가구보다 4.3배 더 많았고, 전세가가구가 월세가구보다 3.1배 더 많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차가가구가 자가보다 3.3배 더 많았으며, 전세가가구가 월세보다 2배 더 많았다. 거주지역 간 점유형태 차이가 뚜렷하여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는 비수도권 거주 가구보다 임차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전세가구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는 수도권 거주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가가구와 월세가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주택유형에서 자녀가구는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엇비슷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에서 공동주택(예,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가 단독주택보다 2.3배 더 많았다. 지역별 주택유형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는데, 수도권에서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수도권의 아파트 외 주택 거주 가구에서 공동주택(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거주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들 공동주택은 고가의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기 부부가구의 아파트 대용 주택이다. 또한, 조사대상 청년 자녀가구가 거주하는 평균 주택규모는 소형(68㎡)이었고, 대다수(4/5 이상)가 초소형(60㎡ 미만)이나 소형(60-85㎡) 주택에 거주하였다.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과반수 이상이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중대형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주택규모와 주택가격 간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의 주택가격이 저렴함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

한편, 분가한 자녀가구의 부모가구 대다수(3/4 이상)는 자가소유주로 자가가가구가 차가가구보다 3.5배 더 많았고 비수도권의 자가가가구가 수도권 자가가가구보다 1.8배 더 많았다. 거주지역 간 주택점유형태의 차이가 뚜렷하여 수도권 거주 가구 중 전월세의 차가가구 비율이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자가소유율이 더 높았다. 즉,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에서 자가소유는 차가보다 2.5배 더 많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에서 4.5배 더 많았다.

주택유형에서 부모가구 중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다수(약 7/10)였으며 아파트 거주 부모가구보다 2.3배 더 많았고, 특히 아파트 외 주택 거주 가구 중 약 절반가량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거주지역별 주택유형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수도권의 부모가가구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그리고 비수도권의 부모가가구는 아파트 외 주택(단독주택) 거주 비

율이 조금 더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가가구가 거주하는 현 주택의 평균 규모는 198㎡로 대형주택이었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모가가구의 평균 주택규모가 수도권 거주 부모보다 1.3배 더 컸다. 거주지역별 주택규모의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모가가구는 대형(135㎡ 초과), 초소형(60㎡ 미만), 중대형(103-135㎡) 주택 순으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는 과반수 이상이 대형(135㎡ 초과)주택에 거주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 주거수준을 비교해 볼 때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주로 대체로 소형 이하(2.3배)의 아파트(1.6배)에 거주하는 임차인(3.5배)인 반면 부모가구는 자녀가구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큰(2.9배) 대형(17.5배) 단독주택(3.6배)에 거주하는 자가소유주(3.5배)였다. 거주지역별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의 거주 상이성이 현저하여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가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보다 아파트 거주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한 반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는 아파트 거주와 차가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비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는 대형 단독주택의 자가소유율이 높았고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보다 훨씬 큰 주택에 거주하였다.

3.3 조사대상가구의 세대 간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 비교

3.3.1 자녀-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유사성 및 상이성

조사대상 자녀가구와 그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을 비교하고자 앞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특성(거주지역, 교육수준)과 거주 특성(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을 중심으로 세대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세대 간 거주지역은 분가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 거주지역 유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표 3). 자녀-부모가구의 절대다수(9/10)는 동일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녀-부모가가구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11%)은 현저히 낮았다. 동일지역 거주 자녀-부모가구 중 비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 비율(52.1%)이 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36.9%)보다 조금 더 높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부모가구에서 수도권 거주 자녀

Table 3. Geographic Distribution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χ ²
	SMA	Non-SMA	Total	
Parents	SMA	225 (36.9%)	12 (2.0%)	237 (38.9%)
	Non-SMA	55 (9.0%)	317 (52.1%)	372 (61.1%)
	Total	280 (46.0%)	329 (54.0%)	609 (100%)

Note. 1) ****p<0.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가구 중 비수도권 거주 부모가구의 비율(9%)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의 비율(2%)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세대 간 거주 근접성은 거리의 마찰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즉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는 여전히 부모와의 교류와 그에 따른 무형의 정서적 자원 이전, 특히 시간 자원의 이전(예, 가사노동, 양육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리적으로 동일 지역 내 거주는 세대 간 접촉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지원을 용이하다.

한편 세대 간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모가구에 대한 자녀가구의 교육수준 우위가 나타났고 거주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자녀가구의 교육수준이 부모가구보다 더 높은 경우가 전체 자녀-부모가구의 과반수 이상(53.9%)을 차지하였고, 세대 간 동일한 교육수준을 보인 비율은 2/5 이상(42.7%)이었다. 즉, 자녀가구의 교육수준이 부모가구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모가구보다 낮은 사례는 극소수(3.4%)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높은 열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거주지역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이 비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가 2배 더 많았다. 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 중 자녀가구의 교육수준이 부모가구보다 우위(54.6%) 또는 열위(4.6%)인 경우

가 비수도권 자녀-부모가구보다(53.2%, 2.4%) 약간 더 높은 반면 비수도권에서 세대 간 동일한 교육수준을 보인 자녀-부모가구(44.4%)가 수도권(40.7%)보다 소폭 더 높았다.

대체로 조사대상 자녀-부모가구 세대 간 거주지역은 동일적이었고, 거주지역의 유사성과 대조적으로 세대 간 교육수준은 자녀가구가 부모가구보다 월등히 높은 가운데 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이 비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보다 고학력 소지 비율이 높았다.

3.3.2 자녀-부모가구의 거주 유사성 및 상이성

분가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의 거주 특성을 파악하고자 Beer and Faulkner(2011)의 주거이력 사다리(housing career ladder) 모형을 적용하여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측면에서 주거수준을 3가지(우위, 등위, 열위)로 평가하였다. 자녀-부모가구 간 거주특성의 차이를 자녀가구의 주거수준이 부모가구보다 우세한 경우를 우위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주거수준이 동일한 경우를 등위로, 자녀가구의 주거수준이 부모가구보다 열세인 경우를 열위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녀-부모가구 간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세대 간 주택점유형태의 상이성과 거주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즉, 자녀가구 중 약 2/3(65.2%)는 부모가구보다 열위인 주택점

Table 4. Educational Attainment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in Total				χ^2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Graduate degrees	Total	
Parents in total	High school graduate	214 (35.1%)	299 (49.1%)	22 (3.6%)	15.991***
	College graduate	12 (2.0%)	45 (7.4%)	7 (1.1%)	
	Graduate degrees	2 (0.3%)	7 (1.1%)	1 (0.2%)	
	Total	228 (37.4%)	351 (57.6%)	30 (4.9%)	
Adult Children in SMA					
Parents in SMA	High school graduate	86 (30.7%)	132 (47.1%)	14 (5.0%)	11.406**
	College graduate	7 (2.5%)	27 (9.6%)	7 (2.5%)	
	Graduate degrees	1 (0.4%)	5 (1.8%)	1 (0.4%)	
	Total	94 (33.6%)	164 (58.6%)	22 (7.9%)	
Adult Children in Non-SMA					
Parents in Non-SMA	High school graduate	128 (38.9%)	167 (50.8%)	8 (2.4%)	5.000
	College graduate	5 (1.5%)	18 (5.5%)	0 (0.0%)	
	Graduate degrees	1 (0.3%)	2 (0.6%)	0 (0.0%)	
	Total	134 (40.7%)	187 (56.8%)	8 (2.4%)	

Note. 1) **p<0.05, ***p<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Table 5. Housing Tenure Types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in Total					χ^2	
	Owning	Chonsei	Monthly rent	Others	Total		
Parents in Total	Owning	102 (16.7%)	233 (38.3%)	72 (11.8%)	66 (10.8%)	473 (77.7%)	32.704****
	Chonsei	15 (2.5%)	32 (5.3%)	18 (3.0%)	3 (0.5%)	68 (11.2%)	
	Monthly rent	9 (1.5%)	15 (2.5%)	23 (3.8%)	5 (0.8%)	52 (8.5%)	
	Others	3 (0.5%)	7 (1.1%)	3 (0.5%)	3 (0.5%)	16 (2.6%)	
	Total	129 (21.2%)	287 (47.1%)	116 (19.0%)	77 (12.6%)	609 (100%)	
Adult Children in SMA							
Parents in SMA	Owning	39 (13.9%)	124 (44.3%)	28 (10.0%)	18 (6.4%)	209 (74.6%)	24.235****
	Chonsei	11 (3.9%)	17 (6.1%)	10 (3.6%)	2 (0.7%)	40 (14.3%)	
	Monthly rent	3 (1.1%)	8 (2.9%)	11 (3.9%)	3 (1.1%)	25 (8.9%)	
	Others	0 (0.0%)	5 (1.8%)	0 (0.0%)	1 (0.4%)	6 (2.1%)	
	Total	53 (18.9%)	154 (55.0%)	49 (17.5%)	24 (8.6%)	280 (100%)	
Adult Children in Non-SMA							
Parents in Non-SMA	Owning	63 (19.1%)	109 (33.1%)	44 (13.4%)	48 (14.6%)	264 (80.2%)	20.547**
	Chonsei	4 (1.2%)	15 (4.6%)	8 (2.4%)	1 (0.3%)	28 (8.5%)	
	Monthly rent	6 (1.8%)	7 (2.1%)	12 (3.6%)	2 (0.6%)	27 (8.2%)	
	Others	3 (0.9%)	2 (0.6%)	3 (0.9%)	2 (0.6%)	10 (3.0%)	
	Total	76 (23.1%)	133 (40.4%)	67 (20.4%)	53 (16.1%)	329 (100%)	

Note. 1) **p<0.05, ***p<0.01, ****p<0.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유형태를 보였으며 부모가구와 동일한 점유형태를 보인 비율은 1/4(26.3%)이었고 부모가구보다 우위인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8.5%). 이러한 주택점유형태의 세대 간 상이성은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확연하였는데, 수도권에서 자녀가구 중 부모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보다 열위(66.1%) 또는 우위(9.6%)인 가구가 비수도권(64.4%, 7.6%)보다 소폭 높은 반면 비수도권에서 자녀가구 중 부모가구와 동일한 점유형태를 보인 가구(28%)가 수도권(24.3%)보다 더 높았다. 이는 주택가격과 자가마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 주택유형을 파악한 결과, 세대 간 상이성이 골고루 분포되었고 거주지역 일부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표 6). 대체로 자녀가구가 부모가구보다 동일(35.8%)하거나 우위인(33.5%) 주택유형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열위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비율(30.7%)도 상당하였다. 거주지역에서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가 부모가구보다 열위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1/3(35.0%) 이상인 반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우위인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비율

(38.3%)이 두드러졌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구 중 부모가구보다 비슷한 또는 더 나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비율(73.0%)이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65.2%)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자녀가구가 부모가구보다 우위의 주택유형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였다.

세대 간 주택규모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자녀가구의 주택면적이 부모가구보다 적었고, 이러한 주택면적의 열위 경향은 수도권에서 더 강하였다. 주택면적을 5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자녀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부모가구보다 대체로 더 작은 경우(69%)가 비슷하거나(19%) 더 큰(12%)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세대 간 주택규모는 수도권(71.8%)에서 규모의 열위인 경우가 비수도권(66.6%)보다 더 높은 반면 비수도권에서 등위 및 우위인 경우가(33.3%)가 수도권(28.4%)보다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을 비교한 결과, 거주지역의 유사성을 제외한 교육 수준,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에서 자녀가구의 열위와 부모가구의 우위가 뚜렷하였다(그림 5). 즉, 세대 간 유사성은 동일 지

Table 6. Housing Structure Types of Young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tegory	Adult Children in Total					χ^2	
	APT	SFH	MFH	Others	Total		
Parents in Total	APT	102 (16.7%)	14 (2.3%)	52 (8.5%)	17 (2.8%)	185 (30.4%)	28,281****
	SFH	133 (21.8%)	55 (9.0%)	77 (12.6%)	24 (3.9%)	289 (47.5%)	
	MFH	49 (8.0%)	11 (1.8%)	44 (7.2%)	3 (0.5%)	107 (17.6%)	
	Others	12 (2.0%)	1 (0.2%)	12 (2.0%)	3 (0.5%)	28 (4.6%)	
	Total	296 (48.6%)	81 (13.3%)	185 (30.4%)	47 (7.7%)	609 (100%)	
Adult Children in SMA							
Parents in SMA	APT	43 (15.4%)	6 (2.1%)	35 (12.5%)	9 (3.2%)	9 (33.2%)	5,219
	SFH	44 (15.7%)	17 (6.1%)	38 (13.6%)	8 (2.9%)	107 (38.2%)	
	MFH	29 (10.4%)	6 (2.1%)	29 (10.4%)	2 (0.7%)	66 (23.6%)	
	Others	7 (2.5%)	1 (0.4%)	5 (1.8%)	1 (0.4%)	14 (5.0%)	
	Total	123 (43.9%)	30 (10.7%)	107 (38.2%)	20 (7.1%)	280 (100%)	
Adult Children in Non-SMA							
Parents in Non-SMA	APT	59 (17.9%)	8 (2.4%)	17 (5.2%)	8 (2.4%)	92 (28.0%)	23,081**
	SFH	89 (27.1%)	38 (11.6%)	39 (11.9%)	16 (4.9%)	182 (55.3%)	
	MFH	20 (6.1%)	5 (1.5%)	15 (4.6%)	1 (0.3%)	41 (12.5%)	
	Others	5 (1.5%)	0 (0.0%)	7 (2.1%)	2 (0.6%)	14 (4.3%)	
	Total	173 (52.6%)	51 (15.5%)	78 (23.7%)	27 (8.2%)	329 (100%)	

Note. 1) **p<0.05, ****p<0.001; 2) SMA for Seoul Metropolitan Area; 3) APT for Apartments, SFH for single family home, MFH for all multifamily housing but 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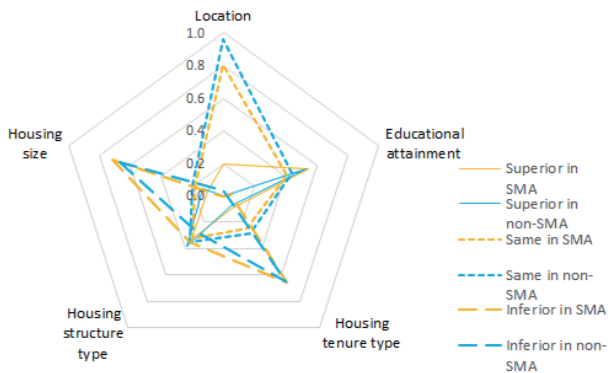


Fig. 5. Housing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in SMA and non-SMA

역 내 공거(共居)로 나타났고 세대 간 상이성은 부모가구보다 자녀가구의 교육수준이 우위인 반면 부모가구보다 자녀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위 경향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가구와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을 비교하여 세대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분가한 자녀가구를 추출하여 횡단면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자녀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고학력 30세 남성 기혼자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2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거주지역별 차이는 가구주 성별과 가구규모에서 나타났는데,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수와 가구원 수가 더 많았다. 한편, 분가한 자녀가구를 둔 부모가구의 가구주는 대체로 고졸 이하의 58세 장년층 기혼 남성 근로자로 3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거주지역별 부모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는 가구주의 교

육수준과 종사상의 지위에서만 나타나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가구에서 고졸 이하의 자영업자 비율이 더 두드러졌다. 대체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모두 가구주가 주로 기혼 남성 근로자인 유사성을 갖지만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수도권 거주(1.2배), 미혼(28.6배)의 고학력(5.1배) 상용직(3배) 임금근로자(2.1배)가 더 많았으며 가구규모가 더 작았다. 반면 부모가구는 자녀가구보다 비수도권 거주(1.6배), 사별에 의한 미혼(75배), 고졸 이하(2.3배), 자영업자(3.6배) 수가 더 많으며 가구규모가 조금 더 컸다.

둘째, 분가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세대(世代) 간 거주 특성 상이성뿐만 아니라 세대 내 거주지역별 차이도 뚜렷하였다. 자녀가구 대다수는 소형 이하 주택의 임차인이었고, 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다수는 초소형 공동주택의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 상당수는 소형 이하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한편, 부모가구는 대형 단독주택의 소유주였으며, 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는 임차인 비율, 아파트 거주 비율, 소형 이하와 중대형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거주 부모가구는 자가소유율, 단독주택 거주 비율, 대형 주택 거주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주거수준 차이는 뚜렷하여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임차가구(3.5배), 아파트 거주(1.6배), 소형 이하 주택거주(2.3배) 수가 더 많은 반면 부모가구는 자녀가구보다 자가소유(3.7배), 아파트 외 주택 거주(1.4배), 대형주택 거주(17.5배) 수가 더 많았다.

셋째, 독립된 개별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자녀가구와 부모가구 간 사회인구학적으로 유사성과 상이성이 공존한 반면 거주 측면에서 상이성이 뚜렷하였다. 자녀-부모가구의 절대 다수(9/10)가 동일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극소수였다. 대조적으로 자녀가구의 교육수준은 부모가구보다 동일(2/5 이상)하거나 우위(1/2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가구보다 열위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3.4%), 대체로 수도권 거주 자녀-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이 높으나 세대 간 열위 관계의 경우도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한편 자녀-부모가구 간 거주 상이성은 주택점유형태와 주택규모에서 뚜렷하였는데 주택점유형태에서 자녀가구 대다수가 부모가구보다 열위였으며(약 2/3), 수도권에서 세대 간 열위 또는 우위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우위, 등위, 열위인 경우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주택유형에서 비수도권 거주 자녀가구는 부모가구와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경우가 수도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주택규모에서 자녀-부모가구 간 차이가 확연하여 자녀가구는 부모가구보다 훨씬 작은 주택에 거주하며, 이러한 자녀

가구의 열위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두드러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가한 청년 자녀가구는 부모가구와 동일한 거주지역 내 거주하면서 부모가구보다 고학력 소지자로 우위에 있지만 세대 간 주거수준은 자녀가구가 열위였다. 즉, 세대 간 거주지 유사성(등위), 교육수준(우위) 및 주거수준(주택점유형태와 주택규모의 열위)의 상이성이 나타났고 세대 간 상이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기 자녀의 분가가 지니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주거수준을 부모가구와 비교하여 세대 간 유사성과 상이성을 시도하였다. 자녀 분가의 영향요인으로 취업과 결혼 모두 주효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자녀의 분가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형 분가와 취업형 분가로 나누어 세대 간 거주 유사성과 상이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조사에서 기혼 청년 자녀의 분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를 위해 양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자녀는 분가 시 주로 고용과 관련한 비자발적 요인이 주거선택 시 최우선시되지만 부모가구와의 교류가 가능한 지리적 근접성이 주요 선택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부모가구 간 거주지 접근성에 따른 거주 실태에 대한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은택·안아림·마강래(2017),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1): 5-19.
2. 고진수·김준형·강민규(2015), “서울 중고령가구의 주택자산 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1): 41-55.
3. 국민은행(1999), 「1999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4. 국토교통부(2017a),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11월 29일자 보도자료. 세종시: 국토교통부.
5. 국토교통부(2017b),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세종시: 국토교통부.
6. 김용진(2013), “유산상속 의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21(3): 83-103.
7. 김주영(2016), “부모와 자녀세대 간 주거 질의 이전에 대한 분석”, 『서울도시연구』, 17(3): 61-73.
8. 김주영·유승동(2013),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애주기상 가구원수 변화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1(4): 65-89.
9. 김주영·유승동(2016), “주택점유의 세대간 이전성”, 『감정평

- 가학논집, 15(1): 1-10.
10. 마강래·권오규(2013), “주택자산의 세대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169-188.
 11. 성금단(2017), “인구조변화에 따른 주거특성 비교 연구: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3): 1057-1076.
 12. 이현정(2015a), “세대 간 가계 자산구성 및 주택자산의 투자성향분석: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09-118.
 13. 이현정(2015b), “생애사를 통해 본 중산층 기혼여성의 첫 자가 마련을 위한 주거경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2): 89-101.
 14. 조원 아스카·최막중(2018), “일본의 세대간 주택자산 이전: 증여세 면세를 통한 부모의 주택자금 지원”, 『주택연구』, 26(4): 5-27.
 15. Altonji, J. G., F. Hayashi and L. Kotlikoff (1996), *The Effects of Income and Wealth on Time and Money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522.
 16. Aquilino, W. and K. Supple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3: 13-27.
 17. Becker,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8. Beer, A. and D. Faulkner (2011), *Housing Transitions Through the Life Course: Aspirations, Needs and Policy*, Bristol, UK: Policy Press.
 19.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20. Sabatelli, R. M. and C. L. Shehan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and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385-411. New York: Plenum Press.
 21. Schnaiberg, A. and S. Goldenberg (1989), “From empty nest to crowded nest: The dynamics of incompletely launched young adults”, *Social Problems*, 36: 251-269.
 22. White, L. and J. N. Edwards (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2): 235-242.
 23. 법제처(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24. 통계청(2020),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5. 한국은행(2020),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